**출0606 Note**

**◆ 고엘 제도.**

**호크마 주석에서 살펴보는 고엘제도**

이스라엘에는 '고엘 제도'라는 관습이 있었다(룻 4:10)..

이스라엘에는 누가 살해 당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복수하고(수 20:5),

땅을 팔았을 때는 대신 물어주고(룻 3:13), 또한 무자(無子)한 채 죽었을 때는 그 아내와 혼인하여 자손을 잇게 해주는제도가 있었다

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가까운 혈족

곧 '고엘'(구속자, 갚는 자)이 되어 주시기도 한다,

이러한 구속자 고엘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연히 드러난다, 그분은 성도의 복수자요(딤후 4:14), 신랑이요(마 9:15), 잃었던 유업을 되찾아 주신 분이다(롬8:17).

**인터넷에서 살펴보는 고엘제도**

1 이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전하고, 혈족을 유지하며,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
2 "고엘"이란 히브리어는 "기업 무를 자" 혹은 "구속자" 라는 뜻으로 가까운 친족을 가리 킨다. 그는 반드시 구속하는 사람과 혈연관계에 있어야 하며(신 25:5-10, 히 2:14-15).

구속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(벧전 1:18-19).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(요 10:18, 히 10:7).

3 구약시대에는 고엘(גאל)제도 가 있었습니다.

고엘 (גאל)은 히브리어 음역으로서 기본적으로  '무르다' ' 되찾다' ' 구속하다' 는 의미를 가진 '가알'에서 온 말로서, 근족, 기업무를 자, 계대를 이어줄 자, 복수해줄 자 등을 의미한다, 곧 고엘은 보상할 자, 회복할 자, 구속할 자, 보복할 자라는 뜻이다,

즉 '고엘'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4 고엘에 해당하는 친척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.

1.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,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 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,
2.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 계대(繼代)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는 것이다,
3.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이므로 원한을 값아 주는 것이다 (레25:25-28, 47-49, 민35:12).

물론 세가지 모두 가속 회의와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해야 했다 (룻4:8-10, 민35:12).

5 그런데 그 의무와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한 구비조건.

①혈연적으로 근족(近族)이어야 합니다 (신25:5-7).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(룻4:3-4).

②본인이 자원해야 합니다 (룻3:13). 그 의무와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.

③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(룻2:1). 기업을 무르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(룻4:5-6).

6 기업 무를 자의 개념은 죄에 예속되어 본래의 기업인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고엘로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 줍니다.

  첫째, 예수님께서는 기업을 몰수 당한 우리의 기업 무를 자이십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속이 되시므로(히 2:14), 우리는 잃어버린 천국을 기업 무를 자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되찾게 됩니다.

  둘째,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고엘이십니다.

  예수님은 우리를 묶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“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”(롬 8:21)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  셋째, 피흘림의 경우에도 기업 무를 자가 중재로 나서게 됩니다. 원래 인간은 영생의 존재였습니다. 그러나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. 살인자인(요 8:44) 사단에게 복수할 자는 다름아닌 인류의 기업 무를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
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고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이행하셨으며,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.